



1. 하늘말라리아(?)

‘하늘말나리’는 나리의 한 종류입니다. 보통 나리꽃은 옆이나 아래를 보고 피는데 하늘말나리는 반점 찍힌 붉은 꽃이 하늘을 쳐다보고 씩니다. 꽃꽂한 꽃이죠.

이 꽃처럼 어려움을 곳곳이 이겨나가는 아이들을 그린 『너도 하늘말나리야』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이 제목은 ‘너 역시 하늘말나리처럼 꽃꽂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너도 하늘말라리아’라고 적고, 그 소개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진 뒤, 꽃 이름을 ‘하늘말라리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라리아’는 며칠 간격을 두고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병입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증세를 빗대 ‘도둑놈병’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예쁜 제 이름이 고약한 병명으로 바뀌었으니 하늘말나리가 안다면 기절할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지만 실생활에서 이처럼 비슷한 발음에 이끌려 잘못 사용하는 단어가 꽤 있습니다. “눈 속에 개나리가 피다니 희안하다”에서와 같이 ‘희한하다’를 ‘희안하다’로 잘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자어 ‘희한(稀罕)’은 드물다는 뜻으로, 신기하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이 비슷해 생기는 오용이 일파만파 퍼져 바른 표현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른 표현을 정확히 사용해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피나리붓집

사람들은 자연을 감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느낀 점을 기록하고자 노력합니다. 기행문 등을 보면 여행에서 느낀 자연에 대한 감상이 풍부하게 드러난 경우가 많죠. 이제 기행문 한편에 동행해 봅시다. 그리고 지리산 여행 곳곳에 숨어 있는 잘못된 표현을 찾아봅시다. 정답이 3개라는 것만 미리 알려 드릴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리산의 봄은 산수유로 열린다. 만복대는 미처 겨울을 벗지 못했는데, 산 아래 상위 마을(전남 구례군)은 노란 꽃잎으로 봄을 재촉한다. 나그네의 붓집이 가볍지만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발걸음은 행운유수.

구름에 달 가듯이 섬진강 따라 경남 하동에 닿는다. 이때쯤이면 춘삼월(음력 3월), 십리 길에 벚꽃이 한창이다. 쌍계사에 배례하고 삼신봉에 올라 숨을 고른다. 주봉인 천왕봉을 오른편에 두고 남부능선을 따르다 음양샘에서 목을 축인다.

[9차시] 말과 자연



이제 주능선까지는 한 시간 길. 해발 1500m가 넘는 고지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른 잔돌밭에 붉은 향연이 펼쳐진다. 5월의 철쭉이다. 구름장 걷히자 봄별이 따스다. 개나리꽃집 베고 꿈에 든다. 새털같이 허구한 날 어찌 그리 무심했을꼬.

봄비에 지는 개나리를 보았습니다. 꽃집 멘 나그네도 보였습니다. 흰 베보자기에 짙신 었고 먼 길을 떠나나 봄니다. 보따리엔 아빠를 그리며 개발새발 써 놓은 아이들의 안부 편지라도 들었을까요? 헤아리기 힘든 많은 날 남편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아내의 마음은 어디에 담았을까요? 나그네의 발걸음은 허허로운데 봄 길은 멀기만 합니다”

힘들지만 마음 넉넉한 지리산 산행에 동행한 것 같은 기분이 드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틀린 표현 세 부분을 찾아볼까요?

첫째는 ‘개나리꽃집’입니다. ‘개나리꽃집’은 ‘괴나리꽃집’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둘째는 ‘개발새발’입니다. 악필을 의미할 땐 ‘괴발개발’(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 즉 글씨를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이 바른 표현입니다.

셋째는 ‘새털’입니다. ‘수많은, 헤아리기 힘든’을 의미할 땐 ‘쇠털’이라 해야 바른 표현입니다.

3. ‘산림욕’과 ‘삼림욕’

북한산 밤골 매표소에서 시작되는 계곡 길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울창한 숲 속을 걸을 수 있는 숨겨진 비경입니다. 나무들이 내뿜는 피톤치드는 잘 알려진 대로 스트레스를 풀어 주고 혈압을 낮춰 주며, 심장과 폐 기능을 좋게 하고, 피로를 없애 준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를 활용해 사무실이나 병실 등에 향기를 흘려보내는 사업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창한 숲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쉬는 것을 ‘산림욕’이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삼림욕’이라 해야 할까요?

‘삼림’이란 ‘나무 뻑뻑할 삼(森)’자에 ‘수풀 림(林)’자를 쓰는 것으로, ‘나무가 많이 우거진 수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림’은 ‘메 산(山)’자에 ‘수풀 림(林)’자를 써서 ‘산과 숲’ ‘산에 있는 숲’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산림녹화, 산림조합, 산림보호와 같이 쓰이죠.

‘산림’은 산에 나무가 뻑뻑할 수도 있고 듽성듬성 있을 수도 있지만, ‘삼림’은 수풀이 뻑뻑하게 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답니다.

[9차시] 말과 자연



숲 속에 들어가 맑은 공기와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를 쥘려면 나무가 우거진 곳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산림’이라는 말은 ‘나무가 뻗뻗하다’라는 의미로는 약하므로 ‘대기옥’을 가리킬 땐 ‘삼림옥’이 ‘산림옥’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라 볼 수 있겠죠.

4. ‘용트림’과 ‘용틀임’

예부터 동양에서 용(龍)은 봉황, 기린, 거북과 더불어 사령(四靈)이라 불려온 상상의 동물입니다. 특히 용은 물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죠. 물속에서 살며 때론 하늘에 오르고 비, 바람, 번개, 구름 등을 일으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3일 오전 용오름 현상이 울릉도 해상에서 2001년 8월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용오름은 거대한 적란운(積亂雲, 상승하는 저기압성 뭉게구름)이 발생해 지표면이나 해수면까지 기둥이나 깔때기 모양의 구름이 드리워지면서 구름 아래에 강한 소용돌이가 생기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마치 용이 승천(昇天)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용오름이라 불립니다. 미국에서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것은 토네이도 또는 랜즈스파우트, 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워터스파우트로 구분합니다.

용이 붙은 말 중에 자주 혼동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용트림’과 ‘용틀임’인데요, 발음이 똑같아 표기에 혼동이 생기는 것이죠.

‘용트림’은 ‘거드름을 피우느라 일부러 크게 힘들여 하는 트림’(=게트림)을 말하고, ‘용틀임’은 ‘전각(殿閣) 등에 용의 모양을 그리거나 새긴 장식’ 또는 ‘이리저리 비틀거나 꼬면서 움직이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비빔국 먹고 용트림한다” “발끝을 딛고 용틀임을 하며 날아오르는 용의 모습과 하늘의 구름 등이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형상화됐다”처럼 쓰입니다.

‘용틀임’은 남사당놀이의 연희자들이 하는 땅재주 동작을 뜻하기도 합니다.

5. ‘우레’가 운다

시 한 편 감상해 볼까요?

[9차시] 말과 자연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꽃’의 생성 비밀을 소재로 인생과 우주를 노래한 서정주 시인의 시 <국화 옆에서>의 일부입니다. 인용한 시어 ‘천둥’과 같은 의미로 쓰는 우리말 중에 ‘우레’가 있습니다. 아마 “우레라니? 우뢰(雨雷)가 맞을 텐데?”하며 미심쩍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988년 한글 맞춤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자어 ‘비 우(雨)’, ‘천둥 뢰(雷)’에 이끌려 ‘우뢰’를 표준어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옛말인 ‘우레’가 한자어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천둥’과 함께 표준어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우레’가 살아나면서 한자어 ‘우뢰’는 표준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참고로 천둥은 한자어 ‘천동(天動)’이 원말입니다. 호도(胡桃)->호두, 통소(洞簫)->통소, 장고(杖鼓/長鼓)->장구 등의 예에서 보듯 한자 모음 ‘ㄱ’이 ‘ㄷ’로 변해 우리말이 된 경우입니다.

※ 심화학습

‘우레’의 유래를 알아봅시다.

‘우레’는 ‘하늘이 운다(鳴)’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울다’의 어간 ‘울-’에 접사 ‘-게’가 붙어 ‘울게’가 되고, 다시 ‘-ㄹ’ 아래에서 ‘ㄱ’이 탈락해 ‘울에’가 되는데, 여기서 앞 글자 ‘ㄹ’ 받침이 뒤 글자 첫소리에 붙어 ‘우레’가 된 것입니다.



6. 산 너머(?) 산

다음은 이문구 선생의 동시 <산 너머 저쪽>입니다. 잠시 감상해 봅시다.

산 너머 저쪽엔
별뚝이 많겠지
밤마다 서너 개씩
떨어졌으니.

산 너머 저쪽엔
바다가 있겠지
여름내 은하루가
흘러갔으니.

이 시에는 맑고 깨끗한 시골의 밤하늘을 쳐다보며 ‘산 너머 저쪽’을 그리는 주인공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 너머’의 ‘너머’를 ‘넘어’로 표기하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너머’는 ‘높거나 넓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엄마는 고개 너머 읍내로 장 보러 갔다” “산 너머 남촌에는...”에서처럼 공간이나 공간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넘어’는 동사 ‘넘다’에 연결어미 ‘-어’가 붙은 것으로 “공이 담을 훌쩍 넘어갔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에서처럼 동작을 나타냅니다. 즉 ‘산 너머 저쪽’은 산 뒤에 있는 공간을 가리키고, ‘산 넘어’는 산을 넘는 동작을 가리키는 것이죠.

‘갈수록 고생이 겹치거나 더 심해짐’을 일러 ‘산 너머 산’이라고 적는 경우가 많은데, ‘산 넘어 산’이라고 표기해야 옳습니다. ‘산 너머에 있는 산’이라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넘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